

2026 군무원 7급 국어

응시번호 _____ 성명 _____

점수 _____ 점

1. 음운 동화의 방향(순행, 역행)과 정도(완전, 불완전)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입만 - 신라
- ② 권력 - 담력
- ③ 국민 - 천리
- ④ 놓는 - 앓는

1

해설 ① [이론 문법]

- ① ‘입만’과 ‘신라’는 모두 역행 동화이자 완전 동화이다. ‘입만’은 [임만]으로 발음한다. 비음 ‘ㅁ’의 영향으로 앞의 ‘ㅂ’을 비음 ‘ㅁ’으로 바꿔 발음하는 역행 동화이며 비음화이다. 또한 두 음운을 동일하게 바꿔 발음하는 완전 동화이다. ‘신라’는 [실라]로 발음되는데, ‘ㄹ’의 영향으로 앞의 ‘ㄴ’이 ‘ㄹ’로 바뀌었으므로 역행이며, 두 음운이 동일하게 바뀌었으므로 완전 동화이다.

오답 피하기

- ② ‘권력’은 [궐력]으로 발음되는 역행 동화이자 완전 동화이다. ‘담력’은 [담녁]으로 발음되는 순행 동화이며 불완전 동화이다.
- ③ ‘국민’은 [궁민]으로 발음되는 역행 동화이자 불완전 동화이다. ‘천리’는 [철리]로 발음되는 역행 동화이자 완전 동화이다.
- ④ ‘놓는’은 [논는](음절 끝소리 규칙), [논는]으로 발음되는 역행 동화이자 완전 동화이며, ‘앓는’은 [알는](자음군 단순화), [알른]으로 발음되는 순행 동화이자 완전 동화이다.

2. 맞춤법이 옳은 것은?

- ① 이를 악물은 채
- ② 때를 밀은 뒤에
- ③ 며칠 전에 뺐 양말
- ④ 입 안이 혈은 것 같네

2

해설 ③ [맞춤법, 표준어 규정]

‘ㄹ’ 받침으로 여간이 끝나는 용언의 활용형의 맞춤법 표기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이다. 각각 ‘악물다’, ‘밀다’, ‘뺀다’, ‘혈다’는 여간의 말음 ‘ㄹ’이 ‘ㄴ, ㅂ, ㅅ, ㅇ’ 앞에서 규칙적으로 탈락되는 용언이다. 모두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악문’, ‘민’, ‘뺐’, ‘헌’으로 활용한다. ③의 ‘뺐’은 올바른 표기이고, 나머지는 ‘악문’, ‘민’, ‘헌’(ㅇ)으로 고쳐야 한다.

3.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꾸준히 ∨ 운동해야 한다.
- ② 시간 ∨ 날 ∨ 때 ∨ 한 ∨ 번 ∨ 방문해 ∨ 주세요.
- ③ 살아남으려는 ∨ 몸부림으로밖에는 ∨ 보이지 ∨ 않았다.
- ④ 제 ∨ 28회 ∨ 수필 ∨ 공모전에 ∨ 여러분의 ∨ 많은 ∨ 참여 ∨ 바랍니다.

3

해설 ③ [띄어쓰기]

③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몸부림으로밖에는’에서 ‘으로’, ‘밖에’, ‘는’은 모두 조사이다. 붙여 써야 한다. ‘살아남다’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 ‘보이지’는 본용언이고 ‘않았다’는 보조 용언이다. ‘보이지’의 ‘보이다’는 파생어이기 때문에 보조 용언 ‘않았다’는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꾸준히 ∨ 운동해야 ∨ 한다’가 올바른 표기이다. ‘운동하다’와 ‘하다’는 각각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 ② ‘기회’ 또는 ‘시기’의 뜻인 ‘때’는 명사이다. 앞의 단어와 구별하여 띄어 쓴다. ‘한번’은 ‘기회 있는 어떤 때에’의 뜻인 부사이다. 붙여 쓴다.
- ④ 차례의 뜻인 접두사 ‘제-’는 붙여 쓴다. ‘제28회’로 붙여 써야 한다.

4. 서술 방식이 예문과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① 정의→ 동일한 근거를 가진 두 개의 선택지 사이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한다.
- ② 대조→서양은 상대적으로 찬 음식이 발전한 반면 동양은 상대적으로 더운 음식이 발전했다.
- ③ 유추→ 건축하기 위해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글쓰기를 하려면 개요가 필요하다.
- ④ 분석→소설은 장편, 중편, 단편으로 나뉜다.

4

해설 ④ [비문학]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④는 소설이라는 대상을 그 종류나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분류'는 종류에 따라 나누는 서술 방식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정의'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서술 방식이다. '딜레마'라는 용어의 개념을 풀이하여 정의하였다.
- ②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서로 맞세워 그 차이점을 드러내는 서술 방식이다. '서양'과 '동양'의 음식 문화를 대비하여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조이다.
- ③ '유추'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다른 대상을 통해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서술 방식이다. '건축과 설계도'의 관계를 통해 '글쓰기와 개요'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옳은 짝이다.

5. 사이시옷 규정에 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예) 셋째
- ②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빗물
- ③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베갯잇
- ④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가윗일

5

해설 ① [맞춤법, 표준어 규정]

- ① '셋째'는 수사 '셋'에 차례나 등급을 나타내는 접미사 '-째'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합성어 규정과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 ② '빗물[빈물]'은 '비'(순우리말)와 '물'(순우리말)이 결합한 합성어이며, 앞말이 모음 'ㅣ'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였다.
- ③ '베갯잇[베갯님]'은 '베개'(순우리말)와 '잇'(순우리말)이 결합한 합성어이며, 앞말이 모음 'ㅐ'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참고로 '잇'은 이부자리나 베개 따위의 거죽을 싸는 천을 뜻하는 순우리말 명사이다.
- ④ '가윗일[가원닐/가웬닐]'은 한자어 '가외(加 더할 가, 外 바깥 외)'와 '일'(순우리말)이 결합한 합성어이며, 앞말이 모음 'ㅛ'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6. 다음 예문과 가장 유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그는 정직한 사람이임이 틀림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쓰일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 ② 어느 독자가 소설 속 주인공을 모방하여 범죄를 벌였다. 결과적으로 작가는 범죄를 초래한 셈이다.
- ③ 현대인이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이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대답이기 때문이다.
- ④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반영하는 교수가 그렇지 않은 교수보다 수업을 더 잘할 확률이 높다. 교육학자 ○○○이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6

해설 ① [논리와 지식]

예문과 ①은 모두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 그 근거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정직하다'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논증은 결국 같은 말을 단어만 바꿔서 반복한 것에 불과한 순환 논증의 오류이다. 결론의 참을 증명하기 위해 결론과 같은 의미의 전제를 다시 가져다 쓰게 되는 것이 순환 논증의 오류이다. ① 또한 결론인 '신은 존재한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이미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명제인 '성경이 쓰였다'를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인과관계의 오류(원인 오판의 오류)이다. 독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작가에게 무리하게 전가하여 인과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 ③ 대중(균중)에 호소하는 오류이다.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진실을 보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수의 대답을 근거로 삼아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 ④ 권위예의 호소 오류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인터뷰에서 언급한 개인적인 견해를 논리적 증거로 삼아 사실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술을 ㉠양조할 때 효모가 당분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전환하는 생화학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효모는 단당류인 포도당과 이당류인 맥아당을 세포 내로 ㉢흡수한다. 이 과정에서 포도당 한 분자는 두 분자의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며, 효모는 생존과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ATP를 2개 얻는다. 이후 산소가 풍부한 환경이라면 피루브산을 다시 분해하여 다량의 ATP를 얻을 수 있다. 사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당을 분해하여 다량의 ATP를 얻는다.

그러나 효모는 산소가 없을 때에도 당을 분해하여 비록 소량이지만 ATP를 계속 얻을 수 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효모가 ATP를 계속 얻기 위해서는 NAD⁺라는 물질이 필요하다. 효모가 NAD⁺를 얻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루브산에서 이산화탄소(CO₂)가 떨어져 나오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된다. 막걸리나 맥주를 마실 때 느껴지는 탄산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다. 이후 아세트알데하이드는 NADH로부터 전자와 수소이온을 받아에탄올이되고 NADH는 NAD⁺가 된다.

에탄올이 인체에서 분해되는 과정은 이와 반대이다. 에탄올은 간에서 분비되는 알코올 탈수소효소(ADH)와 만나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된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다시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LDH)와 만나 아세트산으로 바뀌는데 이때 물도 필요하다.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의 활성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아세트산은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며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7. 앞글의 ㉠~㉣을 바꾸어 썼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빚을
- ② ㉡: 바꾸는
- ③ ㉢: 들어간다
- ④ ㉣: 쪼개지며

7

해설 ③ [고유어, 순화어]

‘흡수한다’는 세포가 외부의 물질을 자신의 내부로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행위의 표현이며, 주체인 효모를 중심에 둔 표현이다. 반면 ‘들어간다’는 대상이 특정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어서 능동적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문맥상 효모가 당분을 내부로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술을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양조’는 우리말로 ‘술을 빚다’라고 표현하므로 문맥상 자연스럽다.
- ② ‘전환하다’는 문맥상 효모가 당분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변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바꾸는’과 바꿔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④ ‘분해되다’는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과정을 뜻하므로 ‘쪼개지며’는 문맥상 적절하다.

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TP는 효모의 에너지원이다.
- ② 효모는 이당류인 맥아당을 분해하지 못한다.
- ③ 효모는 산소가 없이도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다.
- ④ 막걸리나 맥주에 들어 있는 탄산은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함께 만들어진 것이다.

8

해설 ② [비문학]

글에서는 효모가 단당류인 포도당뿐만 아니라 이당류인 맥아당을 세포 내로 흡수한다고 설명했으며, 이후 당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인 ATP를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효모가 맥아당을 분해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효모는 생존과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서 ATP를 얻는다.
- ③ 효모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당을 분해하여 ATP를 계속 얻을 수 있다.
- ④ 피루브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오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막걸리나 맥주의 탄산이다.

9. 밑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겠군.
- ② 사람이나 효모 모두 다량의 ATP를 얻으려면 산소가 필요하겠군.
- ③ 에탄올은 효모가 NAD^+ 를 얻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이군.
- ④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아세트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 활성도에 따라 달라지겠군.

9

해설 ① [비문학]

글에서 물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과정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아세트산’으로 바뀌는 단계이다. 효모가 에탄올을 생성하는 과정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 $NADH$ ’로부터 전자와 수소이온을 받는 단계이며, 이때 물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② 효모는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피루브산을 분해하여 다량의 ATP를 얻을 수 있으며, 사람 또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당을 분해하여 다량의 ATP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 ③ 효모가 ‘ NAD^+ ’를 얻기 위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전자와 수소이온을 받아 에탄올이 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에탄올은 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로 볼 수 있다.
- ④ 본문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아세트산’으로 바뀌는 과정에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LDH)’가 관여하며, 이 효소의 활성도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10.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약하고도 어찌 그리 돌아오지 않는가?
뜰에 핀 매화도 때 지나 지려 하네.
홀연히 가지 위의 까치 소리를 듣고
부질없이 거울 속의 눈썹 그리네.

- ① 여성적인 필치이다.
- ② 정서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다.
- ③ 별한(別恨)의 감정이 드러난다.
- ④ 화자는 임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해설 ④ [고전 문학]

조선 중기 이옥봉이 지은 5언 절구의 한시 '규정(閨情)'이다. 화자는 기약하고도 돌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며, '매화도 때 지나 지려 하는' 상황을 통해 임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탄식한다. 까치 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 거울을 보며 단장하지만, 이는 부질없는 행위이다. 임이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한 체념과 허탈함이 드러난다.

오답 피하기

- ① 임을 기다리며 거울을 보고 눈썹을 그리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여성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 ② 뜰에 핀 '매화'는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시간과 처지를 반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 ③ '별한(別恨)'은 이별의 슬픔이자 정한이다. 기약한 임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느끼는 그리움과 한스러움이 작품에서 드러난다.

[참고] 작품 해설

有約來何晚(유약래하만)
庭梅欲謝時(정매욕사시)
忽聞枝上鶯(홀문지상작)
虛畫鏡中眉(허화경중미)

1·2구에서는 임이 떠나 갈 때 매화꽃 필 무렵, 즉 이른 봄에 온다고 하더니 매화가 다 떨어지도록 오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3~4구에서는 이러한 기다림의 정한을 읊었는데,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민간의 속담을 믿고 기다리던 임이 혹시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며 화장을 하는 모습을 그렸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에서 화자는 까치가 우는소리를 듣고는 또 "거울 속의 눈썹을 부질없이 그리고 있다."고 하였다. 화자는 까치가 우는 소리에 화장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기대에 어그러졌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지 않는 사람을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비탄조로 흐르기 쉬운 기다림의 정서를 반짝이는 재치를 통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절로 웃음이 나오게 하는 내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11. 근대 국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가) 모음조화가 파괴되었다.
- (나) 된소리 계열이 등장했다.
- (다) 주격 조사 '가'가 출현했다.
- (라) 방점과 성조가 소실되었다.
- (마) 아래아(·)의 음가 및 표기가 완전히 소실되었다.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라)
- ③ (나), (다), (마)
- ④ (다), (라), (마)

11

해설 ② [고전 문법]

- (가) 모음조화는 중세 국어에서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파괴되는 현상을 보인다.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 '·'(아래아)의 음가가 완전히 소실되어 모음조화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표기상으로는 계속 쓰이다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와서야 폐지되었다.
- (다)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와 'ㅣ'만이 사용되었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가'가 본격적으로 출현하여 사용되었다. (예) 아당하기, 통랑하기
- (라) 방점과 성조가 완전히 소실되어 국어는 무성조(無聲調)언어가 되었다. 상성(上聲)은 장음(長音)으로, 거성(去聲)과 입성(入聲), 평성(平聲)은 단음(短音)으로 변화하였다.

오답 피하기

- (나) 근대 국어 이전인 중세 국어에도 된소리 표기는 존재했다. 된소리 계열이 등장했다고 볼 수 없다.
- (마) (가)의 설명 참고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 ‘-기’는 명사 파생 접미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형 전성 어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형태가 같아서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사 파생 접미사로서의 ‘-음’, ‘-기’는 용언 어간에 결합하여 새로운 명사를 만드는데 이 단어는 사전에 등재될 수 있다. 반면 명사형 전성 어미로서의 ‘-음’, ‘-기’는 용언 어간에 결합하더라도 그 용언의 성질은 유지되며 단지 그 용언은 체언과 같은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을 뿐이다.

파생 명사와 ㉠용언의 명사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파생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나 명사형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둘째, 파생 명사는 용언으로서의 서술성이 사라졌으므로 논항을 취할 수 없다. 반면에 명사형은 여전히 용언이므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같은 논항을 취할 수 있다.

셋째, 파생 명사에는 선어말 어미가 개재할 수 없으나 명사형에는 시제나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개재할 수 있다.

12.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언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않는다.
- ② 명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단어와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단어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 ③ 명사형 전성 어미 ‘-음’, ‘-기’가 용언 어간에 결합한 형태는 목적어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
- ④ 명사형 전성 어미 ‘-음’, ‘-기’가 용언 어간에 결합한 형태는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될 수 있다.

12

해설 ④ [이론 문법]

‘명사형 전성 어미 ‘-음’, ‘-기’가 용언 어간에 결합한 형태는 용언의 활용형이지 명사가 아니다. 각자 동사 또는 형용사로 등재된 기본형의 단어를 찾아야 한다. 명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든 단어와 달리 용언의 활용형은 사전에 단어로 등재할 수 없다. 가령 “착한 마음을 먹음”에서 ‘먹음’은 동사 ‘먹다’의 활용형이다. ‘먹음’으로 사전에서 확인할 수 없다. 동사 ‘먹다’로 찾아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파생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만 명사형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 ② 두 경우의 형태가 같아서 구별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철수가 크게 웃음을 웃음.”이라는 문장에서 앞의 ‘웃음’은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명사이며 뒤의 ‘웃음’은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동사이다.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 ③ 명사형은 용언의 성질을 유지하며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같은 논항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그가 음식을 먹음을 누가 알겠는가”에서 ‘먹음’은 동사이며 ‘먹음을’과 같이 목적어로 쓸 수 있다.

13. 밑줄 친 단어가 ㉠용언의 명사형이 아닌 것은?

- ① 그는 폭 잡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 ② 우리는 그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다.
- ③ 네가 10km를 달리기는 쉽지 않다.
- ④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13

해설 ② [이론 문법]

②의 ‘슬픔’은 슬픈 마음이나 느낌을 뜻하는 명사이다. ‘우리가 슬프다’(X), ‘그가 슬프다’(X)의 서술성이 없다 ‘슬프다’를 뜻하는 어근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이 결합한 명사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그가 폭 자다’(O). 동사.
- ③ ‘네가 달리다’(O). 동사.
- ④ ‘모든 분들이 행복하다’(O). 형용사

14.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가 바르게 제시된 것은?

- ①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예외) 파일(file)
- ②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예외) 펄프(pulp)
-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예외) 아웃(out)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 가스(gas)

14

해설 ②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영어에서 [p] 발음은 우리말 ‘ㅍ’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펄프’의 경우 첫소리 ‘펠’에 ‘ㅍ’으로 적고, 마지막 받침이 되어야 하는 ‘p’에는 ‘ㅍ’을 넣어 ‘프’로 적었다. 받침이라면 ‘ㅂ’으로 적었어야 하지만 ‘ㅍ’으로 적었다는 것은 동일한 하나의 음운([p])이 환경에 따라 ‘ㅂ’과 ‘ㅍ’으로 달리 적어야 하는 것의 예외적 현상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f’를 ‘ㅍ’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화일, 후라이팬, 후라이드, 화이팅’(X)
-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아웃’은 ‘ㅅ’ 받침을 사용하였다.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가스’는 된소리를 쓰지 않고 적었다. ‘까스’(X)

15.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난번처럼 어리버리 하려고?
- ② 뭘 그리 아등바등 이기려고 해?
- ③ 나도 잠깐 어디 좀 들렀다 느지막이 합류할게.
- ④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어.

15

해설 ① [맞춤법, 표준어 규정]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어 몸을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는 ‘어리바리’(O)이다. 나머지는 모두 올바른 표기이다.

16. 다음 시와 가장 관련이 없는 설명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① 의인화 기법이 사용되었다.
- ②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했다.
- ③ 대상에 대한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 ④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냈다.

16

해설 ③ [문학 일반론]

정호승 시인의 시 ‘슬픔이 기쁨에게’이다. 이 시에는 대상에 대한 관조적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화자는 ‘너’에게 ‘슬픔’과 ‘기다림’을 주겠다고 선언하며,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너’의 태도를 꾸짖고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일깨우려 한다. 화자는 대상을 멀리서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관조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슬픔’을 ‘평등한 얼굴’을 가진 존재로, ‘봄눈들’을 ‘데리고 다녀오는’ 대상으로 표현하여 추상적인 관념을 인격화하였다.
- ② ‘나는 이제 너에게도 ~을 주겠다’와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허용과 음악적인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기다림의 슬픔’과 같이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역설적 표현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다.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콜라 학자들은 여러 세대가 지나도록 엄청난 정보 더미에서 필요한 내용을 손쉽게 찾게 해 주는 정리 원칙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개별 정보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도서관 목록에는 성서가 제일 먼저 와야 했고, 그 다음에는 교부들의 글이 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여 제일 마지막에는 자유 학예에 관한 책이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서의 권위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는 방법이 항상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소소한 세목의 차원에 들어가서는 이 방법이 별 쓸모가 없었으므로 스콜라 학자들은 고대 세계에서 이따금씩 사용되었고 그 이후로도 가끔 사용되기는 했지만 한 번도 일관되게 쓰이지 않았던 체계, 즉 알파벳순의 배열 방식을 사용해서 이를 보충했다. 이 방식은 숫자의 수열만큼이나 추상적이었으므로 그것에 따라 정리되는 내용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고, 모순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내용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나 사용될 수가 있었다. 그 방식은 사전을 정리할 때도, 성서나 고대 그리스 문헌의 용어 색인에도, 도서 목록에도, 정부 문서에도 모두 사용될 수 있었다.

- ① 스콜라 학자들은 오랜 기간 방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정리 원칙을 확립하지 못했다.
- ② 문서의 권위에 따른 배열 방식은 세부 항목 차원으로 내려가면 실효성이 없었다.
- ③ 알파벳순 배열은 고대 이래 일관되게 사용되어 온 체계로서 스콜라 학자들이 이를 계승했다.
- ④ 알파벳순 배열은 사전·색인·도서 목록·정부 문서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었다.

17

해설 ③ [비문학]

글에서는 이 방식이 고대 세계에서 '이따금씩' 사용되었고 그 이후로도 '가끔' 사용되기는 했지만, '한 번도 일관되게 쓰이지 않았던 체계'라고 설명했다.

오답 피하기

- ① 글에서 스콜라 학자들이 여러 세대가 지나도록 엄청난 정보 더미에서 필요한 내용을 손쉽게 찾게 해 주는 정리 원칙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 ② 문서의 권위만을 기준으로 한 정리 방법이 소소한 세목의 차원에서는 별 쓸모가 없었다고 본문에 언급했다.
- ④ 글에서 해당 방식이 사전을 정리하거나 성서 및 고대 그리스 문헌의 용어 색인, 도서 목록, 정부 문서 등 모든 곳에 사용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온도를 높이는 열수주입법과 압력을 낮춰주는 감압법이 주로 쓰인다. 일본이 이번에 시도하는 방법은 시추공 내에서 낮은 압력으로 하이드레이트를 녹여 메탄 가스와 물을 분리하는 '감압법'이다. 2008년에 캐나다 말리크 지역의 육상 동토층에서 감압법을 사용해 세계 최초로 육상 시험 생산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감압법을 하기 위해선 먼저 수심 500m 해저 바닥에서 드릴을 이용해 수심 1,000m까지 해저 지각을 뚫고 들어간다. 그런 다음, 시추공 내부의 물을 뽑아내 지층의 압력을 낮춰준다. 압력이 충분히 떨어지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녹으면서 가스와 물이 생긴다. 이를 위로 빨아올린 다음 가스만 분리해 내면 된다. 감압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장 일반적인 생산 방식이다.

그런데 감압법에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다. 지층 사이에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녹였을 때 지반이 약해져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저 통신케이블 및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으며 심하면 지진과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고체 상태 그대로 놔둔 채 안에 들어 있는 가스만 뽑아 쓰는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 ① 감압법에 관한 상반된 견해를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 ② 감압법과 열수주입법의 장단점을 비교, 대조하여 우열을 가리고 있다.
- ③ 감압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정리한 다음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감압법의 시추 절차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방법이 지닌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18

해설 ④ [비문학]

글은 감압법의 정의를 내린 후, 해저 지각을 뚫고 물을 뽑아내어 압력을 낮추고 가스를 분리하는 시추 절차를 단계별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 감압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반 붕괴 및 자연재해의 위험성이라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글은 감압법의 방식과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상반된 견해를 대립시키고 있지 않다.
- ② 열수주입법은 도입부에서 언급되었을 뿐, 감압법과 구체적인 장단점을 비교하거나 어떤 방식이 우위에 있는지 판단하고 있지 않다.
- ③ 글에서 2008년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점진적으로 정리한 글은 아니다. 또한, 지반 붕괴 위험은 기술적 한계라기보다 해당 방식이 가진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가깝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해 왕이 늘 놀리며 말하기를, [가] “네가 늘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므로 자라서도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는 되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 하였다.

딸의 나이 16세가 되었을 때 상부(上部)의 고씨(高氏)에게 시집을 보내려 하니 공주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라 하시더니 이제 무슨 까닭으로 전에 하시던 말씀을 바꾸십니까? 필부(匹夫)도 오히려 식언을 하지 않으려 하거늘 하물며 지존의 자리에 계신 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임금된 자는 말장난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지금 대왕의 명령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감히 받들어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왕이 진노하며 말하기를, “네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실로 내 딸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어찌 함께 살 수가 있겠느냐? 마땅히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거라.” 하였다.

이에 공주는 값비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 뒤에 매달고 궁궐을 나서 홀로 떠나오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어 이에 그 집에 이르렀다. 눈먼 늙은 어머니를 보고 앞으로 다가가 절하고

는 아들 있는 곳을 물었더니 늙은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들은 가난하고 비루하여 귀인이 가까이 할 것이 못 됩니다. 지금 그대의 체취를 맡아 보니 향기가 보통이 아니고 그대의 손을 만져 보니 부드럽고 매끄럽기가 솜과 같으니 틀림없이 천하의 귀인입니다. 누구의 땀으로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우리 자식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산속에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였다.

공주가 길을 나서 산 아래에 이르러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짚어지고 오는 것을 보고는 공주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려 하였더니 온달이 버럭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이곳은 어린 여자가 다닐 만한 곳이 아니니 반드시 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일 것이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하고 마침내 떠나 버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19. [가]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사건을 회상함
- ② 인물 간 갈등을 해소함
- ③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함
- ④ 사건 전개 방향을 제시함

19

해설 ④ [고전 문학]

[가]에서 평강왕이 딸에게 한 말은 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 이야기의 발단이 된다. 즉, 왕의 농담이 공주와 왕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공주가 스스로 궁궐을 떠나 온달을 찾아가게 만드는 사건 전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가]는 미래의 일을 언급한 것이므로 과거 사건의 회상이 아니다.
- ② [가]는 갈등 해소와 관련이 없다. 오히려 공주가 왕에게 맞서게 되는 갈등의 시작점이다.
- ③ 이 대사로는 온달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 대화를 통해 갈등이 드러난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표현한다.
- ③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행위를 평가한다.
- ④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20

해설 ① [고전 문학]

윗글은 왕과 공주가 혼인 문제로 대립하는 장면, 공주가 온달의 어머니를 만나 온달의 행방을 묻는 장면 등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주가 왕의 식언을 비판하거나, 온달이 공주를 귀신으로 오해하여 거부하는 등의 대화는 인물들의 갈등 양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오답 피하기

- ② 이 글은 인물의 심리를 배경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주로 대화와 행동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글은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참고 온달전(溫達傳)

《삼국사기 三國史記》 권45 열전(列傳)에 수록된 온달의 전기. 고구려 평강왕(平岡王) 때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가난하게 사는 그를 사람들은 그를 ‘바보온달’이라고 하였다. 평강왕의 딸은 울보였다. 왕은 농담으로 나중에 딸을 바보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하였다. 훗날 공주는 왕실을 버리고 가난한 온달을 찾아가 결혼했다. 이후 온달은 고구려의 장군이 되어 무공을 세웠다. 전쟁 중에 아차산성(阿且山城)에서 전사하였다. 죽은 온달의 관(棺)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공주가 가서 관을 어루만지며 이미 생사가 정해졌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관이 움직였다고 한다. <온달전>은 나말여초(羅末麗初)의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말여초에 전기소설(傳奇小說)로 창작된 원작이 있었는데 그것이 김부식(金富軾)에 의해 역사편찬의 자료로 채택되면서 일부 수정을 가한 것으로 본다.

2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것
-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를 정확히 표현할 것
- 중복적인 표현은 간결하게 고칠 것
-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할 것

국방부는 군 장병 및 군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군 AI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본 사업에서는 각 부대의 초급 간부, 병사, 군무원을 대상으로 ㉢AI 기초 이해, 생성형 AI 활용, 실무 중심의 AI 활용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작정입니다.

- ① ㉠: AI 활용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 ② ㉡: 「군 AI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 ③ ㉢: AI 기초 이해, 이론 중심의 생성형 AI 활용, 실무 중심의 AI 활용 등의
- ④ ㉣: 예정입니다.

21

해설 ③ [문장다듬기 어법]

③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적용했을 때 잘못된 수정이다. ‘실무 중심의 AI 활용’과 대등한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AI 기초 이해’와 ‘생성형 AI 활용’ 앞에 각각 수식어를 추가하거나, 혹은 기존의 대등한 명사구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가령 ‘AI 기초 이해, 이론 중심 생성형 AI 활용, 실무 중심 AI 활용’으로 고치거나, ‘AI의 기초 이해, 이론 중심의 생성형 AI 활용, 실무 중심의 AI 활용’으로 고쳐야 구조가 같다.

오답 피하기

- ① ‘강화’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다. ‘AI 활용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성 향상’은 대등한 구조가 아니었으나, 이를 ‘AI 활용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로 수정하여 의미적으로도 대등하고, 대등한 명사구로 병렬시켜 구조적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 ② ‘추진됩니다’는 피동형 표현이다. 적극성이 드러나는 능동형 표현인 ‘추진합니다’로 고치고 이와 호응하는 목적어 ‘사업’을 ‘로’ 고쳐야 자연스럽다.
- ④ 공공언어에서는 객관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다소 사적인 느낌을 주는 ‘작정입니다’를 계획을 의미하는 ‘예정입니다’로 수정하여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참고로 제시문에는 중복적인 표현은 없다.

22.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언’은 흔히 사용되는 말이지만, 이 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주된 원인은 오해와 편견이라고 생각된다. 방언에 대한 오해의 예로서, 방언을 ‘사투리’와 동일시하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표준말과 달리, 그 지방에서만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표준말 ‘여우[狐]’에 대한 ‘여끼’나 ‘예끼’는 함경도 사투리이고, ‘여시’나 ‘여수’는 전라도와 서부 경상도의 사투리이며, ‘야시’나 ‘예수’는 동부 경상도의 사투리이다”라고 할 때의 ‘사투리’가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언어학에서는 방언을 “그 자체로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 언어의 변종(變種)”이며, “표준말과 달리, 그 지방에서만 사용하는 말”을 사투리라 하여 그 둘을 구별한다. 따라서 방언은 표준말과 구별되는 말(= 사투리)뿐만 아니라, 표준말과 동일한 말도 모두 포괄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경상도 방언’이라고 할 때, 그것은 토박이 경상도 사람이 사용하는 말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토박이 경상도 사람이 “가아가서 아아 조오라(가져가서 아이에게 주어라)”나 “예수는 다리가 네 개다(여우는 다리가 네 개다)”나 “이 사람이 손발이 크다”고 말한다면, 그 말 모두가 경상도 방언이 되는 것이다.

- ① 방언과 사투리는 서로 무관하다.
- ② 방언은 사투리의 하위 개념이다.
- ③ 방언은 표준말과 달리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말이다.
- ④ 방언은 표준말과 구별되는 말, 표준말과 동일한 말을 모두 포괄한다.

22

해설 ④ [비문학]

글에서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방언을 한 언어의 변종으로 정의하며, 방언이 단지 표준말과 구별되는 사투리뿐만 아니라 표준말과 동일한 말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글에서는 방언이 사투리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 ② 글에서는 사투리를 방언의 한 종류이자 표준말과 구별되는 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방언이 사투리의 상위 개념이다.
- ③ 글에서 방언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로 지목한 내용이며, 언어학적으로는 표준말과 동일한 말도 방언의 영역에 포함된다.

23. 한자 표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 책을 읽은 감상(感傷)은 한마디로 ‘대단하다’였다.
- ② 저녁이 되자 거리에는 노점(露店)이 하나둘 들어서는기 시작했다.
- ③ 남에게 뒤쳐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과감(過敢)해야 한다.
- ④ 그는 나이는 어리지만 입사 연도로 따지면 우리 부서에서 제일 고참(高參)이다.

23

해설 ② [한자어, 한자]

‘노점(露店)’은 ‘이슬 로(露)’와 ‘가게 점(店)’을 사용하여, 길이나 공터에 시설물을 갖추지 않고 벌여 놓은 가게를 뜻한다. 흔히 노점의 첫 번째 글자 길 ‘로(路)’로 알고 있는데, 이슬 ‘로(露)’이다. ‘노점상(露店商)’이란 이슬을 맞으며 고달프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露(이슬 로)’는 본래 ‘이슬’이라는 뜻이지만, 한자어에서는 ‘드러나다’, ‘밖에서 하다’의 의미로 쓴다. 한데서 잠을 자는 ‘노숙(露宿)’ 또는 ‘노숙인(露宿人)’, ‘노숙자(露宿者)’도 모두 같은 글자이다. 또하나 ‘노골적(露骨的)’, ‘노출(露出)’, ‘노천극장(露天劇場)’, ‘폭로(暴露)’도 같은 글자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의미하므로 ‘느낀 감(感)’과 ‘생각 상(想)’을 쓰는 ‘감상(感想)’으로 고쳐야 한다. ‘감상(感傷)’은 ‘슬픈 마음’을 뜻한다.
- ③ ‘결단력이 있고 용감한’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과감(果 열매 과, 敢 감히 감)’이다. ‘과감(過敢)’(X)
- ④ ‘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뜻하는 ‘고참’은 ‘옛 고(古)’와 ‘참가 할 참(參)’을 사용하는 ‘고참(古參)’으로 표기해야 한다.

24. 다음 글에서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문장은?

- 세계 각국에서 채식주의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 (가) 환경변화로 각종 가축 질병이 유행한 데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으로 비윤리적 육식이 지목된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 (나) 영국의 경우 인구 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채식주의자도 100만~150만 정도로 추산된다.
- (다) 채식주의는 일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부터 완전한 채식주의(비건)까지 다양한 단계로 나뉜다.
- (라) 아직은 그들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여길지 모르나, 몇 년 사이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24

해설 ③ [비문학]

이 글은 세계적인 채식주의 열풍의 원인과 확산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는 채식주의가 확산된 이유를, (나)와 (라)는 채식주의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황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는 채식주의의 종류나 단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인 '채식주의 열풍의 확산'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다.

25. (가)~(라)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한국의 영웅소설은 다음과 같은 서사 구조를 지니는 특징이 있다.
- (가) 주인공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자신의 능력을 점차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스승을 만나거나 특별한 무예와 지혜를 익히며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 (나) 주인공은 공을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가문을 회복하고, 잃었던 명예를 되찾는다. 이를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낸다.
- (다) 주인공은 대개 비범한 탄생 설화를 지니며, 귀한 혈통이나 신비한 징조 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출생 직후 버려지거나 가문이 몰락하는 등 시련이 함께 제시된다.
- (라) 주인공은 국가적 위기나 개인적 원한과 같은 갈등 상황에 맞서 싸운다. 이 과정에서 적을 물리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나) - (라)
③ (다) - (나) - (라) - (가)
④ (다) - (가) - (라) - (나)

25

해설 ④ [비문학]

한국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서사 구조는 주인공의 일생을 따라가는 '일대기적 구성'을 따른다. (다)는 주인공의 '탄생과 시련'을 다룬다. 영웅소설의 시작은 언제나 비범한 출생과 그에 뒤따르는 고난으로 출발한다. (가)는 시련을 겪는 주인공의 '성장'과 '자질 습득' 과정이다. 고난 속에서 스승을 만나 능력을 키우는 단계가 이어진다. (라)는 성장한 주인공이 '갈등을 해소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단계이다. 국가적 위기 등을 해결하며 영웅적 면모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말과 보상'의 단계이다. 공을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하며 권선징악의 주제를 완성한다.

2026년 군무원 국어 7급

	유형	2026
1	문법	4
2	어문 규정	5
3	어법	1
4	어휘	1
5	한자, 한자어	1
6	속담, 한자성어	
7	비문학 독해	8
8	화법, 작문	
9	논리	1
10	문학	4
11	기타	

1. 2026년 군무원 7급 국어 시험 총평

2026년 군무원 7급 국어 시험은 국어의 기본 개념을 충실히 반영한 시험이었다. 일반 수준의 국어 학습 능력과 과거 군무원 국어 기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제 언어 자료와 다양한 제재에 적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다.

- ① 문법과 어문 규정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논리, 독해, 문학, 국어사, 공공언어 등 다양한 영역이 균형 있게 출제되었다.
- ② 특히 단순한 암기형 문제보다 개념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거나 제시문을 분석하여 판단하는 문제가 많아 기본기를 갖춘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험이었다.

2. 시험 난이도 및 특징

- ① 전체적인 난이도는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중상(中上)'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본 개념만 암기할 수험생이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항이 적지 않았으며, 세부적인 문법 규정과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다수 포함되었다.
- ② 특히 문법 영역은 단순한 규정 암기를 넘어 음운 변동의 유형과 방향, 명사형 전성 어미와 명사 파생 접미사의 구별, 외래어 표기법의 예외 규정 등 실제 시험에서 변별력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 ③ 비문학 독해에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함께 요구하여 전체적으로 9급 시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평가하였다.

3. 영역별 출제 양상

- ① 문법 및 어문 규정: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음운 동화의 방향과 정도, 활용형의 맞춤법, 띄어쓰기, 사이시옷 표기, 명사형 전성 어미와 명사 파생 접미사의 구별, 외래어 표기법 등이 출제되었다. 특히 음운 동화는 역행·순행 동화와 완전·불완전 동화를 함께 판단하도록 하여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였다. 형태론과 통사론을 함께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는 응용형 문항도 출제되었다.
- ② 국어사: 근대 국어의 특징(모음 조화의 변화, 주격 조사 '가'의 출현, 방점과 성조의 소실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과 달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국어사 지식을 꾸준히 확인하고 있다.
- ③ 어휘 및 어문 규정: 표준어 표기, 외래어 표기법 예외 규정, 공공기관 문서의 문장 다듬기 등이 출제되었다. 특히 공공언어 문항은 군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문서를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 ④ 논리 및 사고력: 논증의 오류(순환 논증, 권위예의 호소 등)를 구별하는 문제와 서술 방식(정의, 대조, 유추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국어 지식뿐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 독해 능력을 함께 요구하는 7급형 문제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 ⑤ 비문학 독해: 생명과학, 정보 분류 체계, 에너지 자원, 언어학 등 학술적인 소재가 활용되었다. 지문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지는 않았으나, 전문 용어가 포함된 글을 빠르게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 ⑥ 문학: 고전 한시와 현대시, 고전 산문이 출제되었다. 이옥봉의 「규정」,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온달전」 등이 활용되었으며, 세부 내용 암기보다는 갈래의 특징, 표현 방법, 작품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4. 향후 학습 전략

- ① 문법 및 어문 규정: 체계적인 정리가 필수적이다. 음운 변동, 형태소와 단어의 형성, 품사, 활용, 명사형 전성 어미, 표준 발음법,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등 핵심 영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출문제를 통해 적용 연습을 해야 한다. 규정의 예외 사항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학습하는 것이 좋다.
- ② 비문학 독해: 다양한 분야의 글을 꾸준히 읽으며 중심 내용과 논리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인문 분야의 학술적 제재에 대한 독해 경험을 쌓고, 논리적 오류 분석 및 서술 방식 분석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
- ③ 문학: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갈래의 특징, 표현 기법, 화자의 태도, 서술 방식 등을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작품 전체를 암기하기보다 주제와 문학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고전과 현대 문학을 균형 있게 학습해야 한다.

5. 종합 의견

2026년 군무원 7급 국어 시험은 국어 전 영역을 고르게 평가하면서도 문법과 논리, 독해에서 높은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이었다.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제 언어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지만, 단순 암기식 학습에 의존한 수험생에게는 다소 어려운 시험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특히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비문학과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비문학만이 아니라 문학, 문법 등 모든 문제에 지문을 제시하고 있다. 글을 읽고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도 문법의 체계적인 이해와 독해력, 논리적 사고력을 중심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익힌 뒤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적용하는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다.